

## 跛龔生の 周易解釋에 對한 批判(三)

安浩相

이때까지 論한 것을 一扁 □□하기 爲하여 다시 易說□□의 朱子□을 引用하여 보려한다. 『朱子曰 聖人作易之初□□仰觀俯察見得□天地之間 無非一陰一陽之理 有是理則是象 有是象則其數便自在道理』이 朱子 말에서 『聖人作易之初……無非 一陰一陽之理』라 하는 句文과 또 『有是理則有是象……便在道理』라는 句文을 根本的으로 省察하여야 될 것이다. 朱子の 처음 句文에 依한다면 跛龔生の 말과 같이 易의 起源과 發生 原因이 宇宙의 現象과 物에 잇다 할 수 잇다. 웨그러나하면 다시 程子の 말과 같이 『理無形也□因象以明理』(易說□□)故로 먼저 天地를 充□한 物과 象을 觀察한 後 陰陽을 認識하였으며, 또 이것을 認識한 後에 陰陽의 理를 認識하여 作易한 까닭이다. 이와 같이 物에서 陰陽, 또 陰陽에서 理에 到達하는 過程은 우리의 主觀的□□過程이다. 다시 말하면 物은 陰陽의 認識根據(Erkenntnis-sgrund)며, 또 陰陽은 理의 認識根據가 되므로서 物(象)과 陰陽과 理의 順序는 그들의 認識根據를 表示한 것이다. 그러나 『有是理, 有是象』等은 理를象(物)의 制約이며 根據며 또 象은 數의 制約이며 根據가 됨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理는 象과 數의 存在根據(Seinsgrund)를 表現하는 것이다. 理, 象, 數의 存在根據를 意味한다 함은 程子の 다음 句로 說明할 수 잇는 것이다. 『張○中間 易之義本紀於數 曰□ 義起於數 卽非也 有理而後有象 有象而後有數易因象以知數 得其義則象數 在基中矣』(易說綱領)이것을 보아 理는 物과 現象의 存在根據로서 可能制約인 것을 不拘하고 跛龔生은 理의 □□根據에 不過한 『物』을□對象上□해서 周易思想이 唯物論的이라 主張하니 其心を 難測이라 아니할 수 없다. 氏는 다시 五行 說에 依하여 周易思想이 唯物的인 것을 主張하여 가로대 『宇宙現象의 關係는 언제나 水火木金土의 五種物로 形式 되고 또 그리하여 그들의 變化로 말미암아 現象이 變化함을 論斷 하였으니 말하자면 五行은 宇宙의 現象을 做出한는 五種의 原□的 物質인 것이다』하였다. 氏의 이

말에 對해선 누구든지 肯定하는 바이다. 그러나 氏가 周易에 있어서 天地萬物과 宇宙現象의 根源이 五行인줄 알고 어짐해야 五行의 根源이 陰陽이며 또 陰陽의 根源이 太極인 줄은 認識하지 못하였든지. 周易에서 누누히 反復한 文句인 『易有太極 是生兩□兩□生四象……』이란 것과 또 □子 太極□에서 『太極動而生陽 動極而□ □而生陽 靜極□動 一動一靜 互□□根 分陰分陽 兩□立場. 陽□附合. 而生水 火 木 金 土 五氣類□ 四時行爲』이란 것을 볼진대 萬物의 根源과 本은 五行이며, 五行의 本은 陰陽이며, 다시 陰陽의 根源은 太極인 것이다. 만일 陰陽五行의 根源이 되는 이 太極自身이 物質적인 것일 적에는 跛龔生의 主張과 같이 周易思想이 唯物論적인 것이나 만일 그와 反對로 太極이 非物質적인 것일 때는 氏의 主張이 非周易의이며 反周易의 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太極이 무엇인가? 太極本質의 仔細한 說明은 容易한 것이 아닌 故로 여기선 다만 簡明을 爲하여 朱子의 註解 몇 句節만을 草記하려 한다 『朱子曰 太極者 象數未形而其理 己具之稱』又曰 『太極之義 正謂理之極致耳 有是理 卽有是物』이라 하였다. 이로 因하여 太極의 本質은 物質적인 것이 아니라 『理』로서 非物質적인 것을 認識함 있다. 다시 或者가 『理』自身이 物質적인 것이 아니다?고 反問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사람이 알을 生産하지 안느냐?』하는 것과 같이 無意味, 反意味한 것인 故로 거기에 對하여서는 答할 意味조차 없고 다□附言할 것은 太極과 陰陽과 五行과 萬物 이와 같이 順次的으로 말하는 것은 事實的 分類가 아니라 窮理上或은 論理的 區別로서 時間的 先後가 아니라 論理的 制約性과 被制約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氏가 『太極은 形上形下の 實體』로서 『形而上者로 道와 形而下者로 器를 具有한 者이다』(五回五段(한것은 周易思想으로보아 可能한것이며 또 氏의 이主張은 도리어 自己의 唯物的 周易說을 □□□이 破壞해 버리고마 려다. 왜그러야하면 形而象者와 形而下者 道와 器, 理와 物(氣)을 自己의 □□로서 具有한 太極은 道와 物 의統一이며, 全體로서 이□□□과 同一한것이아닌가 답이다. 氏의 말에 依하건대 『萬物이내 於陰陽이라』하여야 萬物이 陰陽으로부터 出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지 『萬物이 出於陰陽之變』이라할 時□이 『之變』二字가 □附한 까닭에 陰陽이 萬物로부터 出한 것을 意味함이라 하지마는(四回二段)나의 생각으로는 그의 正反對로 『萬物이 出於陰陽이라』하기 보다 『萬物이 出於陰陽之變이라』해서 『之變』二字를 □附한 것이 論理的으로 萬物이 陰陽으로부터 出한것을 □仔細히 表現함을 믿는다. 왜그러야하면 萬物은 陰陽而陰陽하고 陰陽而化陽해서 陰陽의 一進一退, 卽 陰陽의 周易으로 因하여 出하는 까닭이다. 前回拙文에서 形而上者는 制約者로서 主와 體

며, 또 形而下者는 被制約者로서 客이, 用이라한데 對하여 氏는 批判하기를 『主客說은 二元的 觀念이요. 體用說은 一元的意識이다』라 하여 拙者를 二元的 立場에서 論하였다. 그러나 主客의 兩概念은 氏가 使用한 實體와 屬性의 兩概念보다 二的 色彩를 적게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왜그러나 하면 實體와 屬性의 兩概念은 哲學史上에서 一元的으로 보다 二元的 或은 多元的 觀念으로 使用되었거니와 主客의 兩概念은 現代認識論的 論理學에서 使用한바 二元論 或은 多元論 乃至一元論까지 否定하게 되는 까닭이다.

拙文에서 理와 道를 區別한데 對해서 氏는 批判하기를 『宋儒들이 老子의 一生一, 一生兩思想을 □□해야 太極思想과 老子思想과의 間에 界線을 明示한 것은 不朽한 功績이어나와 氏□筆者의 指稱』는 이제 道와 理가 다른 것을 말함으로써 다시 이 界線을 撤廢해 버리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五回二段) 고 하였다.

그러나 儒學에 있어서 文獻上으로 窮理上으로 理의 道를 區別할 수 있으며 또 반듯이 區別해야 될 것이다. 그러케 함으로 비로소 儒學의 太極思想과 老子의 道의 思想이 嚴然히 區別될 줄 안다. 周易과 또 그 以外의 文獻에서 『理則也』 『理一而已』 『萬理出於此一理』 라는 文句들을 볼 수 있지 만은 『道則一也』라 하는 文句는 읽은 記憶이 나지 안는다. 氏亦如斯히 文句를 引用 明示한바 없다. 拙者가 理와 道를 區別함은 言論的 思想을 意味함이 아니라 칸트와 헤겔이 理念과 概念을 區別하는 意味와 同一한 것이다. 다시 老子思想에 關한 것을 말한다면 儒學의 道와 老子의 道가 根本적으로 相異하다 아니할 수 없다. 萬一 西山眞氏의 말과 같이 『以其通行而言則 曰道以其極致而言則曰極』이라는 것과 또 中扁에서 『道是當行之路也』라 한 것을 본다면 道는 通行의 對立者로 通行이 相對者이다. 그러나 老子의 道는 그와 달라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無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老子道德經自章)로서 道(無名)의 前提가 없이는 天地(有名)와 萬物이 不可能한 고로 如何한 種類의 通行이든지 全然不可能한故로 老子의道는 儒學의道 그것보다 一層 高遠한 것으로서 儒學의 太極과 同一한 것이다. 그러므로 金剛經 治夫圓相□에 對한 □並堂의 註解에서 圓相은 『禪家之□初一句字 儒學之統一太極老子之道』와 同一하여 天地萬物의 母가 된다 하였다. (끝)